

敬堂 張興孝의 思想과 文學

— 一元消長圖를 中心으로 —

崔 斗 植*

• 日 次 •

- | | |
|---------------|----------------------|
| 一. 敬堂의 삶과 爲人 | 3. 周期論의 時間觀과 敬堂의 時間觀 |
| 二. 敬堂의 思想 | 三. 敬堂의 詩文學 |
| 1. 一元消長圖의 構造 | 四. 結論 |
| 2. 時間觀의 史的 展開 | |

一. 敬堂의 삶과 爲人

敬堂 선생의諱는 興孝, 字는 行原이며, 敬堂은 그의 號(敬字於座右因以自號)이다. 선생은 1564년(甲子, 明宗19, 明嘉靖 43年)에 誕生하였으며 1633년(癸酉, 仁祖11, 明崇禎6年) 壽 70세로 逝去하였다. 墓地銘이나 行狀 등 기록에 의하면 그는 安東人으로 고려 太師 貞弼의 後裔이며, 曾祖의諱는 以武, 祖의諱는 翁, 考의諱는 彭壽임이 알려졌다.

선생은 어린 시절 端重寡默하였으며, 놀이에 있어서 스스로 成人의 儀度를 지녔다. 점점 자라면서 鶴峰 金誠一, 西厓 柳成龍, 寒岡 鄭述에게서 承學 求道하였으며 巴야흐로 明理로써 修身하기에 이르렀는데 小學과 近思錄에 博通하고 諸經典에 대하여 精思 力踐하였다. 鶴峰 선생은 敬堂을 그의 後學 중에 크게 될 자로 인정하였다. 西厓 선생과의 “理”에 대한 論議¹⁾는 유명한데 서애 선생은 각

* 東亞大學校 韓國語文學部 教授

1) “嘗夜侍柳先生論理字 柳先生指燈火曰 火之虛處是理乎 先生對云 虛與實對理無對似不可以虛爲理也 柳先生卽應之曰 虛有虛之理 實有實之理 自此推虛甚重 每對榻指陳存心養氣之要 其所證訂爲多”(敬堂集 附錄 行狀)

具太極의 理로 “분수의 理”라는 입장을 취한 반면 경당 선생은 근원적인 理로서의 “理一”의 입장이었다고 본다. 또 寒岡 선생과의 “存心養氣之要”에 대한 辯論으로 선생의 학문에 心得 있음이 입증되었다.

선생의 일상 생활은 그의 自號에서 보듯이 敬으로 일관했다고 短評할 수 있다. 鷄鳴에 일어나 盥櫛 衣冠하고 家廟 拜謁과 朱子畫像 參拜를 마치면 종일 서실에 꿇어앉아 簡編을 좌우에 하고 머리 숙여 독서하며 사색하기를 저녁까지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한밤중까지도 촛불을 끄지 않았다고 한다. 居處 남쪽에 松柏을 列植하고 ‘霽月’이라 이름하였다 한다. 講誦하는 여가에 冠童과 거닐며 禮를 익히고 襟懷를 詠歌하였다고 하니 그의 일상 중 훌륭한 作詩 생활의 일면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생은 70평생중 50년을 林泉에 묻혀 簞瓢自樂하며 오직 性理之原에 篤學專心하였다. 본고에서는 一元消長圖를 중심으로 선생의 사상과 문학에 대하여 論하고자 한다.

二. 敬堂의 思想

경당 선생은 寒岡 門下에서 크게 文名이 높았다. 당시 한강 선생은 經學, 算數, 兵陣, 醫藥, 風水에 정통하였으며 百梅園에서 儒生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경당 선생은 특히 한강의 경학과 산수에 깊이 심취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一元消長圖는 경당 선생이 1617년 가을부터 模寫하기 시작한 이후 한강 선생과 서신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깊이 토론하여 제작한 것으로, 20년 동안 연구한 그의 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旅軒 張顯光은 일원소장도에 대하여 진실로 앞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것(眞所謂發前人未發者也)이라고 讚嘆하였다.

즉 “得其心者 幸也 夫夫攻易者 孰不窮其理也”²⁾에서 보듯이 일원소장도를 통하

2) 趙碩亨:一元消長圖跋 敬堂續集卷二

여 得心窮理의 경지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다. 전부 12張에 담겨 있는 의미는 깊고 오묘하다.

1. 一元消長圖의 構造

일원소장도는 玉齋胡의 先天節氣圖를 參考推演하여 十二圖를 만든 것이다. 선천절기도는 分配節氣圖로서 分配位置의 多寡疏密함과 가지런하지 못한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誤謬에 의심이 가는 바가 있어 다만 참고하기를 반복한 후 十二圈圖에 十二箇月을 配分하고 다시 二十四氣를 配分하여 새롭게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원소장도는 선천절기도보다 한층 개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寒暑의 進退, 節氣의 오르내림, 節序의 不可亂, 易數의 不可缺 등의 원칙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 元周期-大周期(最小單位:年)

12進元周期(單純周期)	一元十二會	129,600年	
	一運十二世		360年
30進元周期(煩雜周期)	一會三十運	10,800年	
	一世三十歲		30年

(나) 歲周期-小周期(最小單位:分)

12進歲周期(單純周期)	一歲十二月	129,600分	
	一日十二辰		360分
30進歲周期(煩雜周期)	一月三十日	10,800分	
	一辰三十分		30分

(다) 一元 一十二會의 生成 變換

復會 64卦 第二爻가 변하여 臨會가 됨
 臨會 第三爻가 변하여 泰會가 됨
 泰會 第四爻가 변하여 大壯會가 됨

大壯會第五爻가 변하여 夬會가 됨
 夬會 第六爻가 변하여 乾會가 됨
 乾會는 伏羲之圖임

姤會 64卦 第二爻가 변하여 遯會가 됨
 遯會 第三爻가 변하여 否會가 됨
 否會 第四爻가 변하여 觀會가 됨
 觀會 第五爻가 변하여 剝會가 됨
 剝會 第六爻가 변하여 坤會가 됨
 坤會는 文王之圖임

六會 先天 一圈~復會, 臨會, 泰會, 大壯會, 夬會, 乾會 <伏羲先天圖>

六會 後天 一圈~姤會, 遯會, 否會, 觀會, 剝會, 坤會 <文王後天圖>

(라) 消長原理

* 自復而乾者 六陽之月

自姤而坤者 六陰之月

陽長而陰消 陰長而陽消³⁾

* 敬堂 선생은 一元消長圖序에서

運, 世, 日, 分과 그 消長之理의 法은 모두 64卦로서 相乘한다고 하고
 “坤之後 15일 15분과 復之前 15일 15분이 합하여 復之一爻를 이루며
 乾之後 15일 15분과 姤之前 15일 15분이 합하여 姤之一爻를 이룬다.
 그 밖의 360爻의 消長도 유추할 수 있다. 대개 陰陽의 消長은 서로
 그 삼는데 마침은 復의 시작이요, 시작은 復의 마침이다.”⁴⁾

3) 李時明: 一元消長圖跋, 敬堂集

4) 其法, 皆以六十四卦, 相承也. 坤之後十五日十五分與復之前十五日十五分合而成復之一爻
 乾之後十五日十五分與姤之前十五日十五分合而成姤之一爻. 其他三百六十爻之消長 亦回
 此而類推也. 蓋陰陽之消長互爲基根(敬堂集)

2. 時間觀의 史的 展開

인류는 다방면으로 시간을 체계화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대에서 15,6세기까지는 “自然思辨”에 의한 시간 이론 발전기라고 한다. 유목, 농업, 항해로 기상관측법과 대지측량법이 발달하고 인간의 시간 관념과 우주관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 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니키아의 천문학과 曆法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원전 16세기 중엽에서 기원 12세기까지 중국 商代는 농업 생산 활동으로 천문, 역법, 기상 지식이 두르러지게 발달하였다. 즉 기원전 13세기경 상대 甲骨文字에 日蝕, 月蝕과 새로운 별에 관한 기록 흔적이 보인다고 하며, 이때 벌써 干支記日法을 採用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해시계(土圭, 혹은 圭表)로 그림자를 관측하여 동지와 하지를 확정하였으며, 刻漏로 시간을 표시하였다.

春秋 末期에는 冬至와 夏至의 주기를 파악하였으며, 歲星(목성~불길한 별)이 약 12년 순환주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戰國時代에는 농업이 전문 연구 대상이 되면서 천문학자들은 木, 火, 土, 金, 水 5行星의 운행 규율을 관측하여 甘石星經이란 세계 최초의 恒星表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秦漢代는 천문학의 황금기로 종전 365 1/4日을 1年으로 하던 것을 365 385/1539日을 1年으로 고침으로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려 하였다. 또 한무제는 太初曆을 채용하였으며, 西漢의 長安宮 靈臺(觀象臺)에서 候風儀로 風向과 風速을 측정하였다. 逸周書·時訓에 있는 二十四節氣와 七十二候는 세계 최초의 계통적 物候學 기록으로 알려졌다. 東漢의 張衡은 水運渾天儀란 天文器機를 발명하였다.

魏晉南北朝에 들어오면 隋代에 水力轉動渾天儀를 발명하였고, 唐代에는 緯度의 측정으로 子午線 實測의 端初를 가져왔으며, 張遂와 梁令瓚이 黃道游儀를 제조하여 항성의 위치를 새로이 측정하였다. 宋代에는 10,000kg 넘는 銅渾天儀 4대를 제조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全天恒星을 관측하였다.

3. 周期論的 時間觀과 敬堂의 時間觀

시간의 흐름을 주기론적 진행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은 晝夜, 長短, 盛衰, 盈缺을 바탕으로 시간 마디를 정한다. 一元消長의 “消長”도 같은 개념이다. 王充은 潮汐의 원인이 달이 차고 이지러짐에 달렸다고 보았다.⁵⁾ 古人은 낮을 “朝”라 하고 저녁을 “夕”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이는 이 두 글자가 海水의 불어남과 관계 있는 말 潮와汐이기 때문이다.

주기론은 節氣周期, 星期周期, 冷暖周期 등 세 가지 설이 주류를 이룬다. 절기주기는 夏代에 日影의 장단을 관측하여 春分과 秋分(晝夜均分), 夏至와 冬至(晝夜互長)를 파악하였으며, 周代에는 立春, 立夏, 立秋, 立冬 四節氣를 파악하였고, 西漢初에 二十四節氣를 확정하여 지금에 이른다.

敬堂 선생은 周易과 宋代 先天象數學을 원용하여 시간 순환론을 제시하고 있음이 짐작된다. 周易·爻辭에 “無平不陂 無往不復”이란 말이나, 老子에 “大曰逝 逝曰遠 遠曰返”이란 말은 周期性 發展 變化 理論으로 전형적 시간 순환론의 배경 사상이라 하겠다.⁶⁾ 邵雍은 先天象數學⁷⁾을 확립한 자로서 現世界 이전 이미 존재하던 특별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現세계 소멸 이후 새로운 세계를 인정하였다. 그가 세계 每變更 일차를 “一元”이라고 하고 그 하위 단위를 會, 運, 世로 하였는데, 이는 경당 선생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⁸⁾

일원소장도는 경당 선생이 선학들의 시간관을 참고하여 보다더 구체적이고 알

5) “濤之起也 隨月盛衰”(論衡)

6) 周期의 진전 발전과 循環時間論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라는 설이 있지만 자연계의 운동은 火變金, 金變水, 水變土에 다시 土變水, 水變金, 金變火로 돌아가며 끊임없는 윤회를 반복한다고 헤라이크레이토스가 주장하였다. 여기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논하고자 한다.

7) 邵康節은 宋代사람으로 儒學과 易學에 능하였다. 그의 先天象數學은 符號 形象 數學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우주변화를 추측하는 학설로 周易과 道教思想중 象數說을 합쳐 번잡하고 신비로운 象數學體系를 制定한 것이다.

8) 邵康節에 대한 敬堂先生의 見解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義不能勝欲 理不能勝私 每中夜以思恒然 內夜向者 竊窺康節先天之說 正如井蛙之議 滄海不自知 其孤陋就其裏面推衍成圖”(敬堂集 卷一 答張旅軒書 辛未正月日)

기 쉽게 도식화한 것이다. 시간이란 無始無終한 개념으로 사실 그 어느 한정된 부분만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인류는 끊임없이 시간의 단위를 생각하고 시간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큰 단위를 “元”이라고 정하고 세계는 원으로써 한 역상의 주기를 삼으며, 129,600元을 지나면 원의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일원소장도에서 시간 파악을 위한 경당 선생의 세심한 배려는 元 이상에 대한 발전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시간의 線上에서 “卅”이하 月, 日, 分 등 시간의 小單位도 추론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특이하다.

경당 선생의 시간관은 易에 기초한 心學을 학문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선생은 사람의 마음과 천지의 마음은 일반이라고 하고 陽이 비록 動하여도 만물이 未生이면 이는 靜中之動이라고 하였다. 경당 선생은 한강 선생에게 보낸 글에 “천지의 합은 德이요, 일월의 합은 明이요, 四時의 합은 序요, 귀신의 합은 길흉이니 비유컨대 어찌 학문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만일 만물이 靜態的 實存이라면 인간은 시간 개념을 떠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유물론자들은 시간을 “움직이는 물질의 일종의 존재 형식”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심학에 근거한 시간관은 이와는 달리 유심론적 시간관이다. 경당 선생은 일원소장도 제작에 앞서 먼저 부모를 생각하고 천지를 생각하였다. “자식된 자 누가 그 아버지를 드러내지 않으랴(爲子者孰不顯其親也)”라는 평범한 윤리에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생각(量親心, 知親心)하고 나아가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을 생각(量天心, 知天心)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父母子 “3”이라는 家數와 天地人 “3”이라는 宇宙數 파악으로 기본적 同數 “3”의 중요성이 입증된다. 경당 선생의 敬思想이 여기에 깊게 깔려 있다. 즉 어버이에 대한 敬은 그대로 사람으로서 천지 우주에 대하여 지켜야 할 敬思想으로 확대된다. 동일한 우주수와 가수 3은 일원소장도의 기본수가 된다. 경당 선생은 量親心과 量天心을 통하여 음양의 조화와 靜動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시간적 과정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일원소장도의 제작은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당 선생의 敬思想은 일반적인 시간관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

가 될 수 있다. 그런데 敬의 대상인 天, 宇宙는 시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宇'는 空間으로서 四方上下의 구체적 실재성을 가지며, '宙'는 往古來今の 연속성을 지니는 時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주를 시공간개념으로 보는 점에는 동서간 다소 견해차가 있다. 서양의 '연속통일'이라는 시공 관념, 민코프스키(Minkovski)의 '四度統一'(Four Dimensional Unity), 신실재론자 알렉산더(S. Alexander)의 '空時'(Space Time), 아인슈타인(Einstein)의 '통일의 장'(Unified Field) 등의 설이 있는가 하면 동양의 先秦시대 우주관은 물질계와 정신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宇'는 心으로 보고 있다. '宙'의 시간적 의미에는 또 時의 순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宙는 舟車의 의미로 此岸과 彼岸을 왕래하는 교통 수단이기 때문이다.⁹⁾

三. 敬堂의 詩文學

경당 선생의 문학은 그의 사상의 구체적 流露라고 할 수 있다. 前言한 바와 같이 그는 거처의 남쪽에 松柏을 列植하고 霽月이라 이름하였다. 講誦하는 여가에 冠童과 그 곳을 거닐며 習禮하고 마음 속에 깊이 품은 생각을 詠歌하였다고 하니 그의 문학적 실천은 그의 사상과 교육 생활 속에 깊이 녹아 있었다.

敬堂集에 수록된 시문의 量은 다음과 같다.

詩	25(五言14 七言11)	賦	1
辭	2	疎	1
書	6	答問	4
贈言	5	祭文	2

9) “古往今來曰宙也”(唐, 房玄齡)

“舟車自此至彼, 復自彼至此 皆如循環然”(段注)

雜著

辨1

箴2

錄2

拾遺2

〈卷之一〉

日記要語

一元消長圖 序跋文

附錄

行狀言行錄

墓誌

奉安祭文

常享祝文

附錄 張處士詩四首跋

〈卷之二〉

本稿에서는 시 25편 중 경당의 중요 관심사였던 時間 題材를 다룬 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인간은 시간적 존재이다. 시간에 대한 관심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萬萬千千古	만만 천천 먼 옛날
年流水易流	해가 흐르고 물 또한 흘러 오네 〈記夢〉

“세월과 물” 둘의 동일 속성에 착안하여 읊고 있다.

冬至子之半	동지는 子支의 한가운데
可見天地心	천지심을 볼 수 있네
天心無改移	천심은 改移함 없으니
藹然緒可尋	애연히 실마리 찾을 수 있지 〈冬至日題敬堂楣間〉

“동지-子之半”이라는 時點과 “천심”이라는 우주적 時空을 떠올리며 시인의 내면 세계를 표출하고 있다. 이는 경당 선생의 唯心論的 世界觀을 시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一關又一闔	한번 열리면 한번 닫히고
一闔又一關	한번 닫히면 한번 열리네
闔自月窟闔	닫힘은 월굴로부터 닫히며
關自天根關	열림은 천근으로부터 열리네
其闔有漸闔	그 닫기는 점점 닫히고
其關有漸關	그 열기는 점점 열린다.
人於闔關間	사람은 닫힘과 열림 사이에서
亦有小闔關	또한 작은 닫힘과 열림이 있다.
靜是陰之闔	靜은 음의 닫힘이요
動是陽之關	動은 양의 열림이다.
人之有動靜	사람에게는 動靜이 있지만
猶天有闔關	오직 하늘에는 闔關이 있다

〈闔關吟〉

시간은 천지 闔關 사이에서 존재하는 概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動과 靜 중 動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한 바퀴 오고 가기 겨울과 봄은 몇 번이었던고, 인간 만사에 屈伸이 있는 법”(一環來往幾冬春 萬事人間有屈伸<偶題>) 闔關과 動靜의 主體는 하늘과 인간이다. 하늘과 인간은 정신적 이해 대상이다. 따라서 경당의 시간관은 근대 唯物論者들이 ‘움직이는 물질의 하나의 존재 형식’이라고 주장하는 설과는 배치된다.

今日是何日	오늘은 어느 달인가
壬申春正月	임신년 춘정월이지
今日是何日	오늘이 며칠인가
正月初一日	정월 초하루지
行年今幾何	지나간 해 지금 얼마런가
七十欠單一	70년 세월 다만 한 해 모자라네

〈歲時自警〉

敬堂 선생의 70壽는 二世 十年에 해당한다. 五分之一運을 조금 넘는 시간을 사셨지만 그의 70수를 맞는 감회는 특별했던 것 같다. 즉 그는 우주의 존재와 시간 원리를 窮究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보는 바,

雷聲奮地中	뇌성이 땅 가운데 진동하니
陽德來駸駸	양덕이 말달리듯 오는구나.

萬物從此始	만물은 이에서 비롯하니
生意孰能禁	생의를 누가 막으랴
天心端可見	천심의 끝 볼 수 있으나
微妙無形音	미묘하게도 형음이 없어라.
始知貞復元	비로소 貞은 元으로 돌아감을 아노니
萬古恒如今	만고의 세월 항상 이제와 다름없어라. <復見天地心>

먼저 天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비롯하는 모든 사물의 변화 원리를 찾으려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물의 변화 원리는 動靜의 원리라고 보는 바,

所以動而靜	동하고 정하는 까닭과	
所以闔而闢	闔하고 闢하는 까닭	
是可謂之道	이를 道라고 하나니	
道器離不得	道와 器는 떨어질 수 없다.	
器與道爲體	기와 도는 한 몸이 되어	
代明如日月	일월처럼 밝힌다.	<闔闢吟>

動靜과 闔闢의 원리가 道라는 것과 道器 一體說을 읊은 작품이다.

四. 結論

敬堂 선생은 退溪學脈을 이은 학자로서 一元消長圖에 담아낸 그의 사상은 深奧하다.

그의 일원소장도는 시간의 순환론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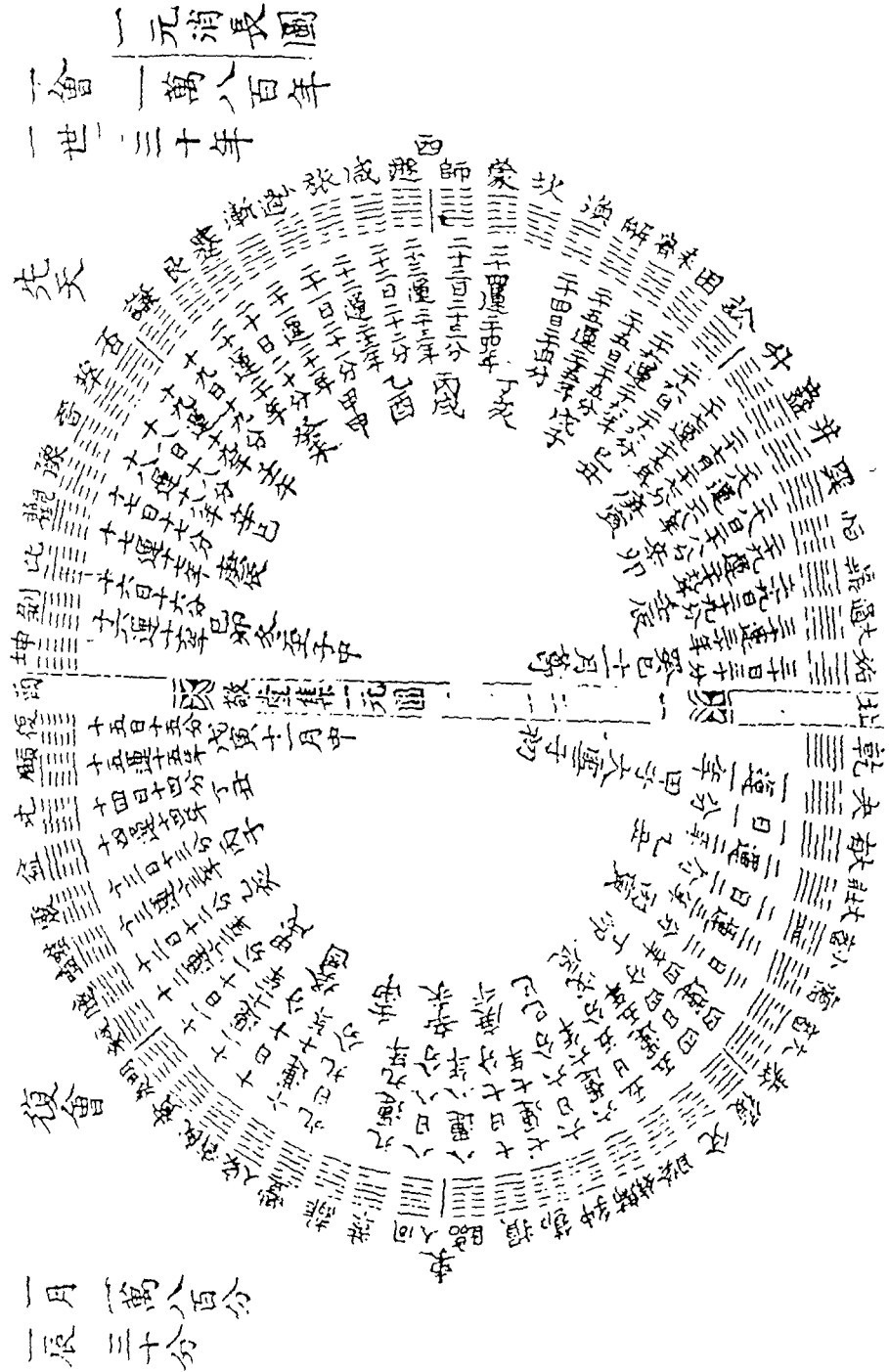
대주기(元주기)와 소주기(歲주기)로 대별할 수 있으며 다시 각각 12진의 단순주기와 30진의 번잡주기로 나눌 수 있다. 이는 十干 十二支에 바탕을 수치이며, 12와 30의 수는 궁극적으로 3이 바탕이 되고 그것은 天, 地, 人 三才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一元一十二會는 六會先天과 六會後天으로 구분하며 전자가 양 후자는 음이 되어 상대적으로 소장이 이루어진다. 元 會, 運, 世와 歲, 月, 日, 辰에 주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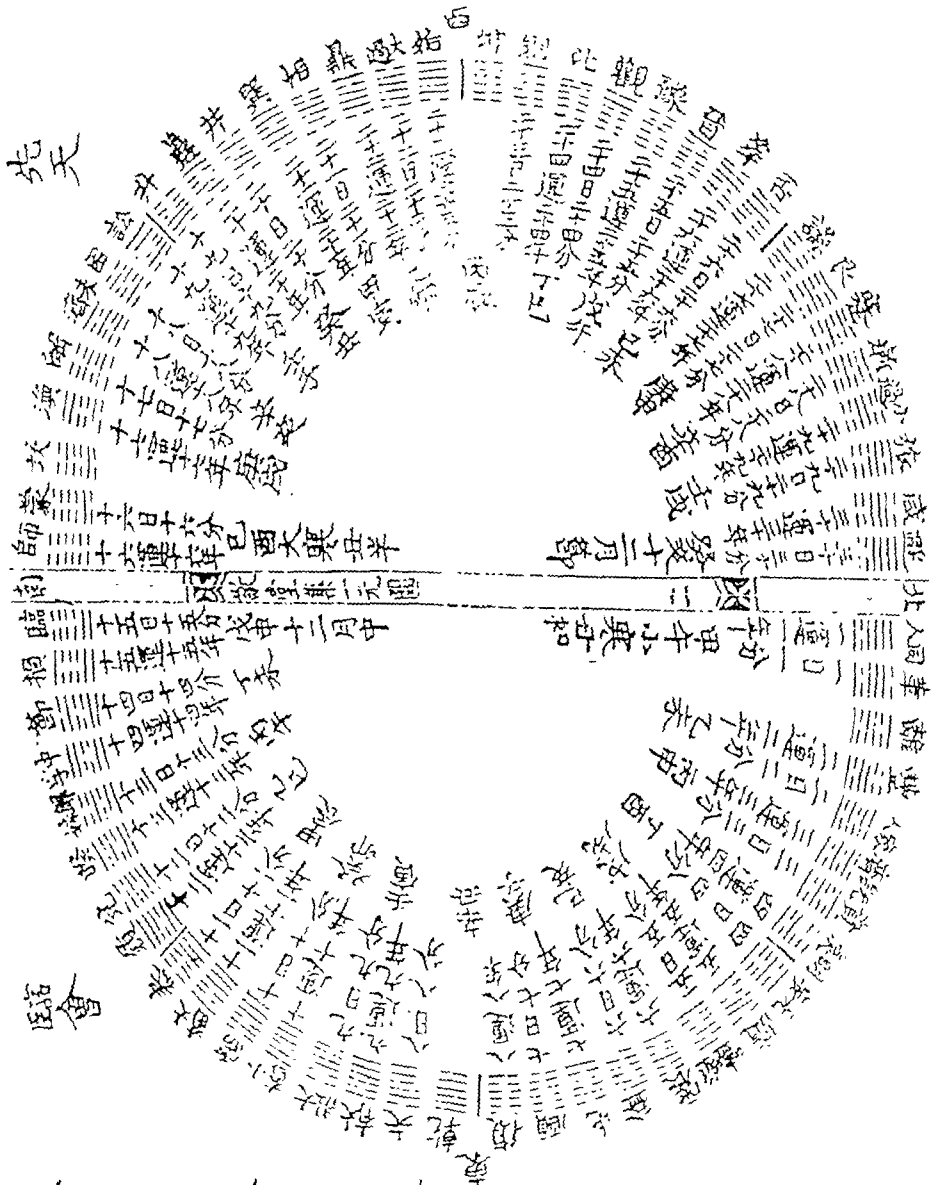
卦爻를 적용한 선생의 시간학은 驚異之境이라 할 만하다.

경당의 문학 연구, 여기에서는 주로 그의 시간관과 관련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사실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느 시편보다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람은 시간적 존재이고 시간, 시절, 세월,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을 문학에 반영함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문학사에서 절기를 읊은 작품이나 월령체의 작품, 역대가와 영사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인식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早早 - 一元消長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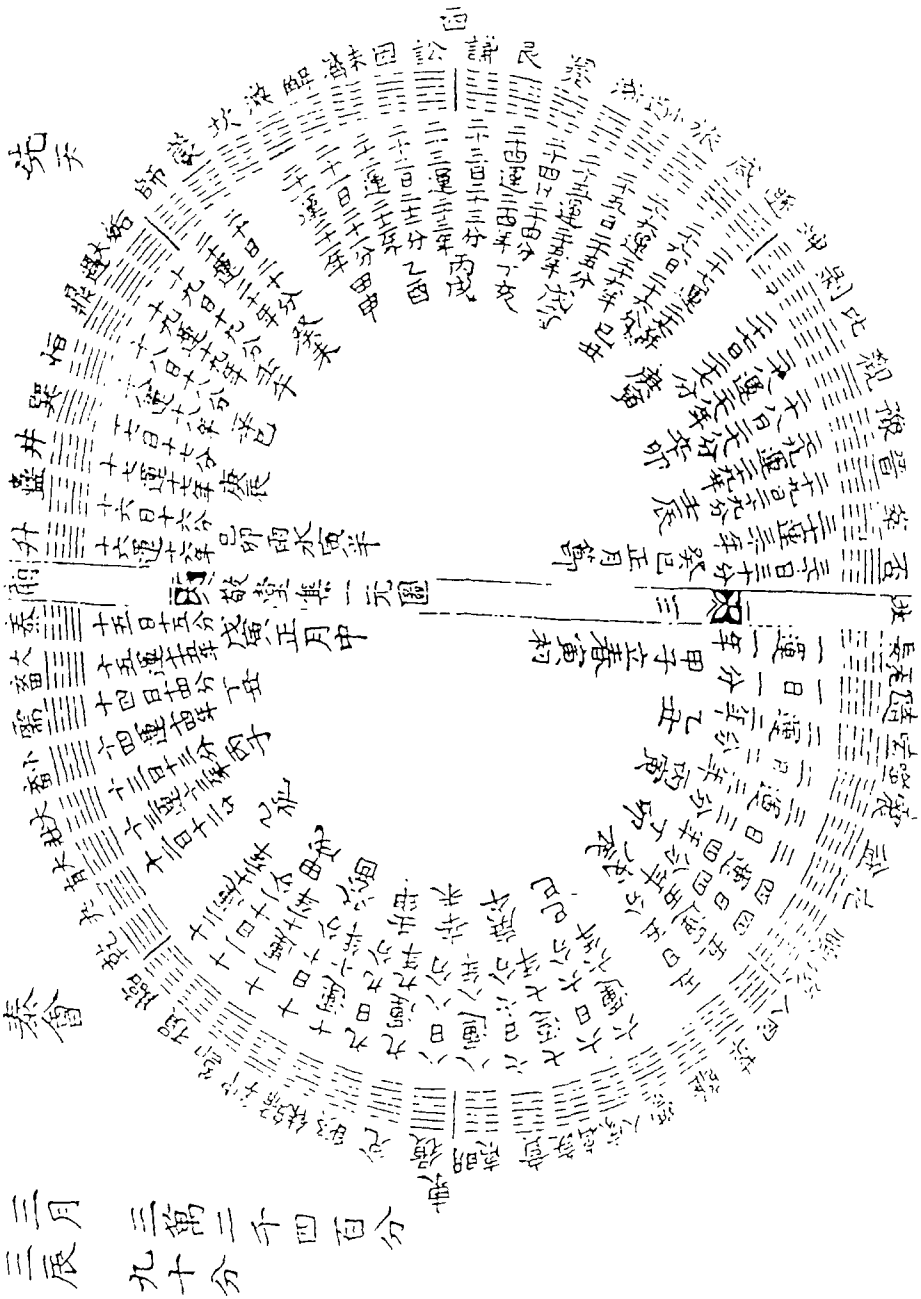


二會 二萬一千六百
二世 六十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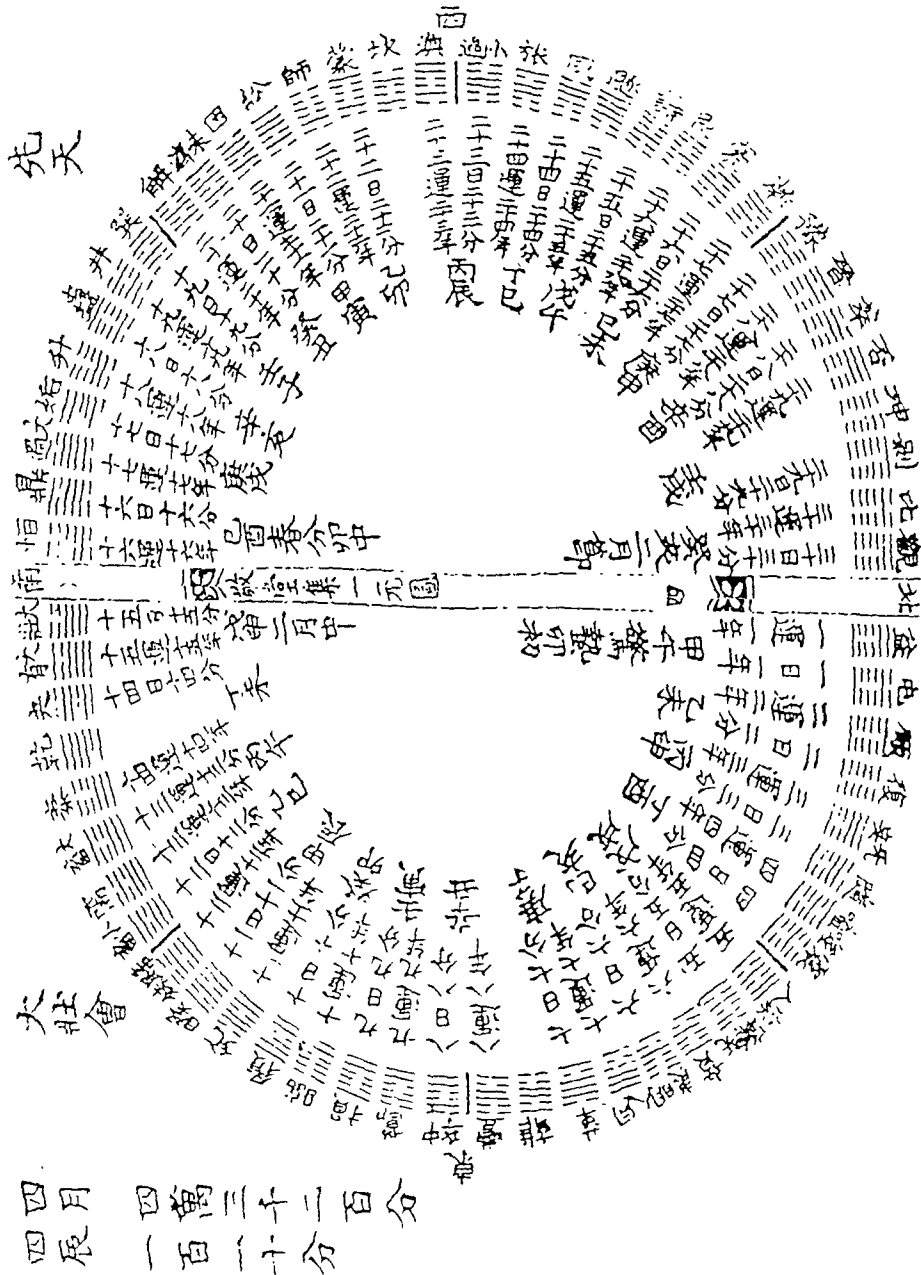


二月 二萬一千六百分
二辰 六十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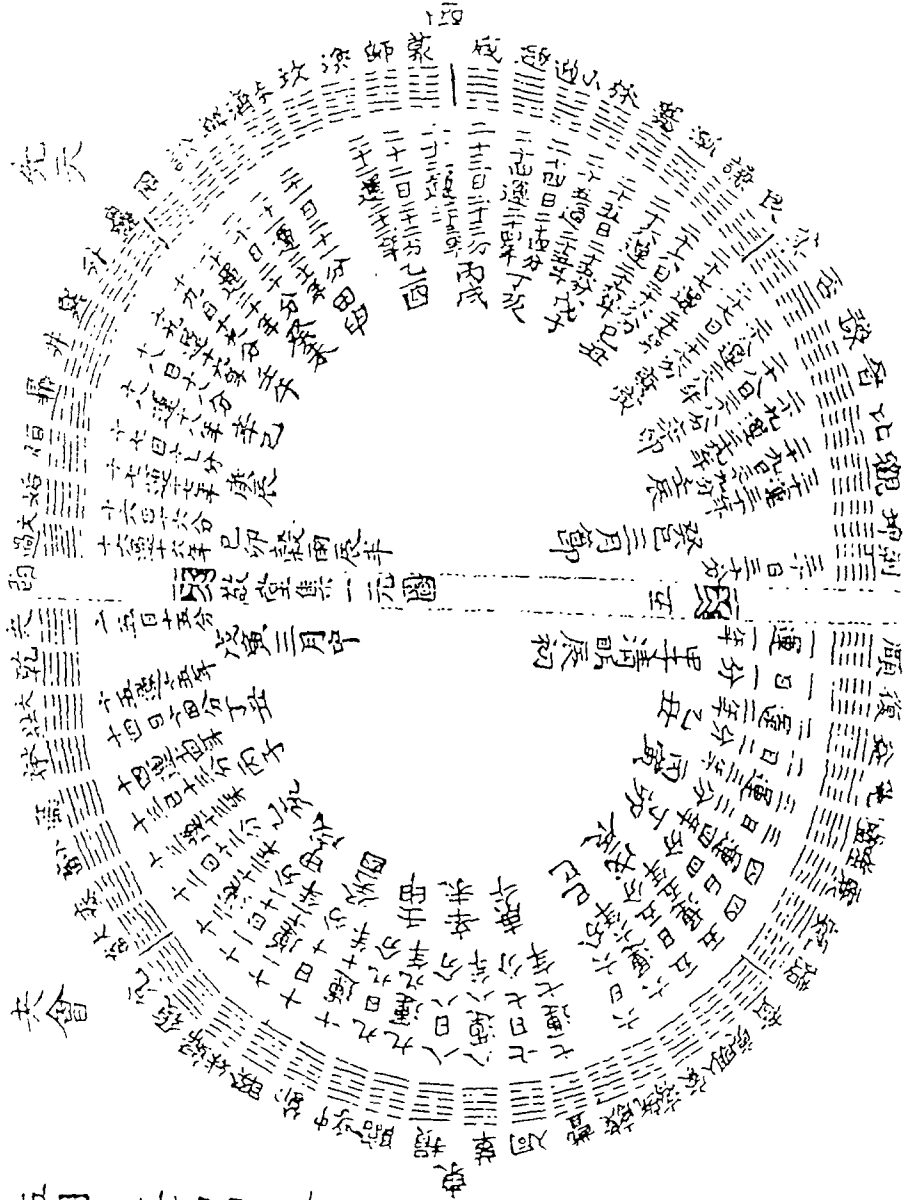
三會 三萬三千四百年
三世 九十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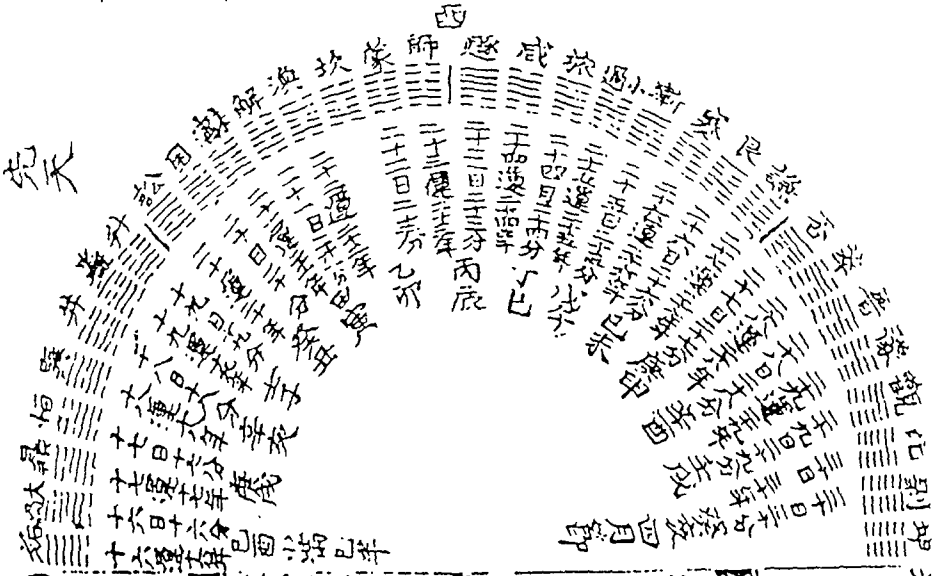
四會 四萬三千二百年
 四世 一百二十年



五會 五萬五千年
五世 一百五十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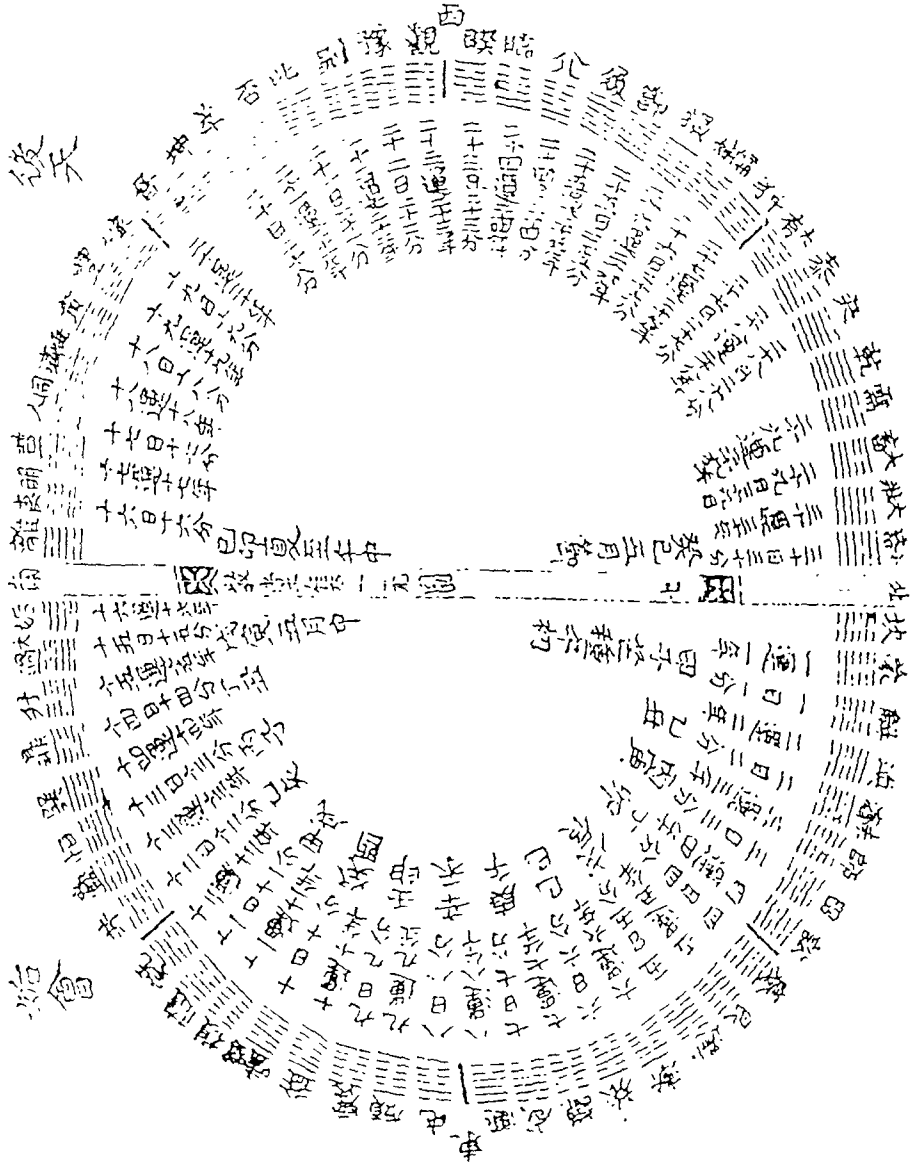


六會 六萬四千八百
六世 一百八十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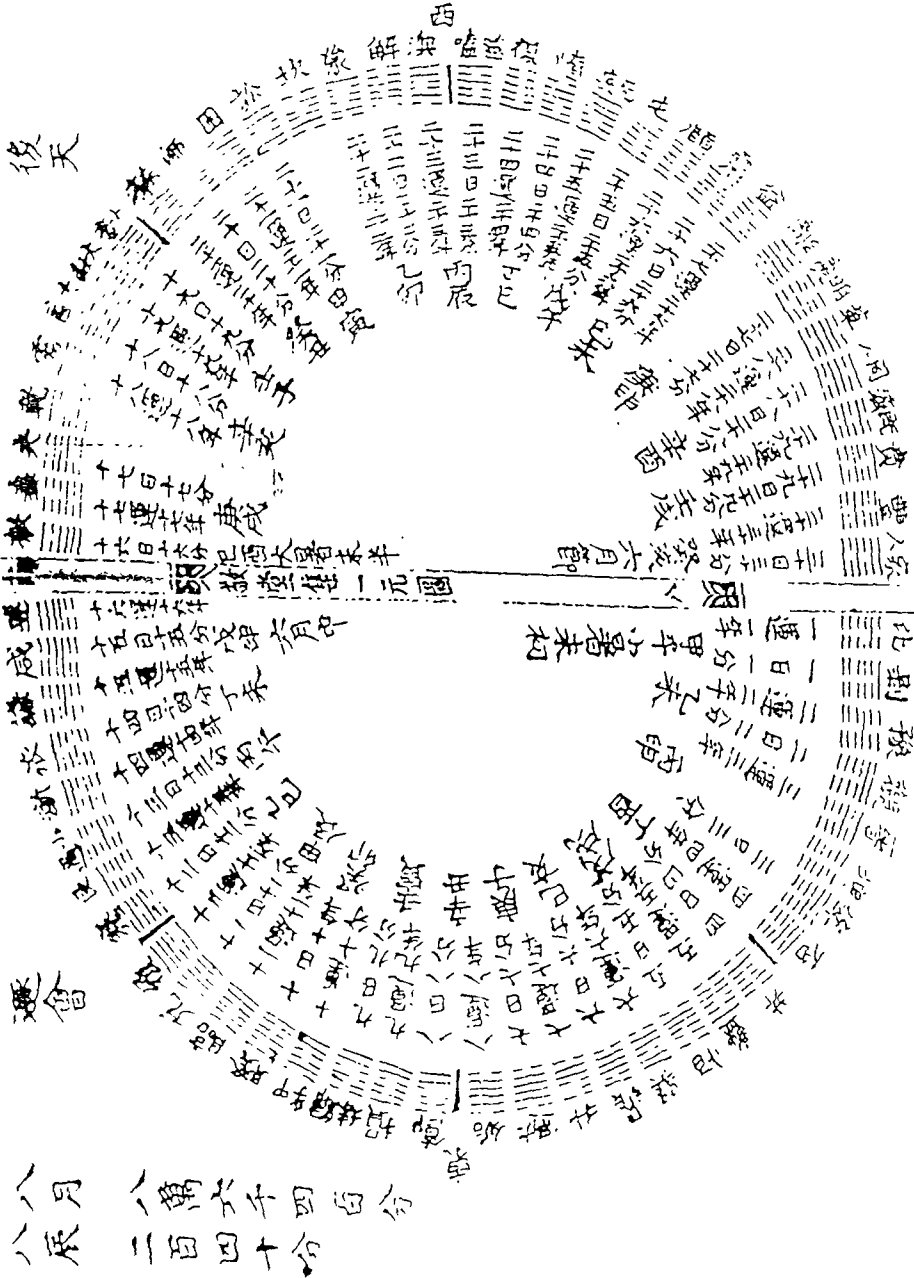
六月 六萬四千八百分
六辰 一百八十分

七會 七萬五千六百年
七世 二百二十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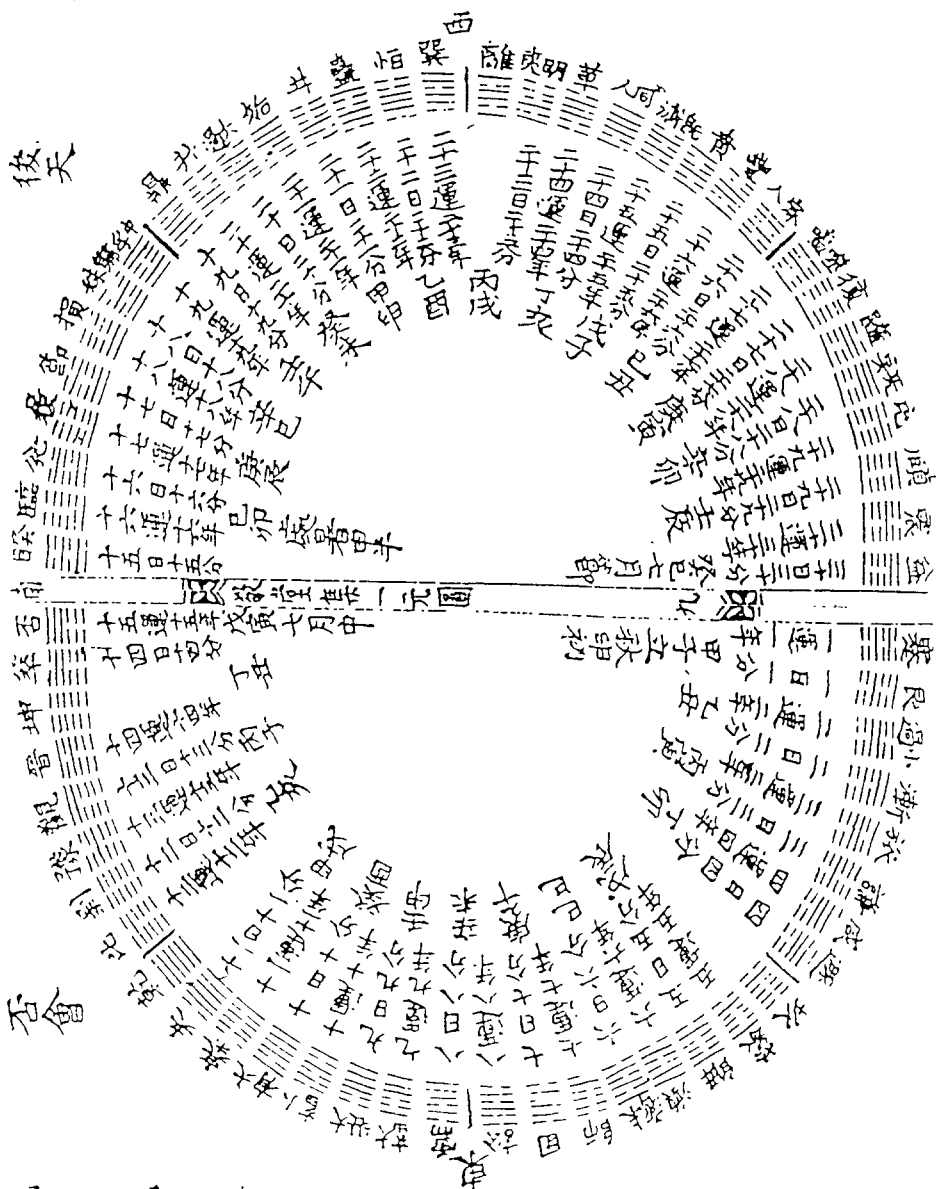


七月 七萬五千六百年
七辰 二百二十年

八會 八萬六千四百年
八世 二百四十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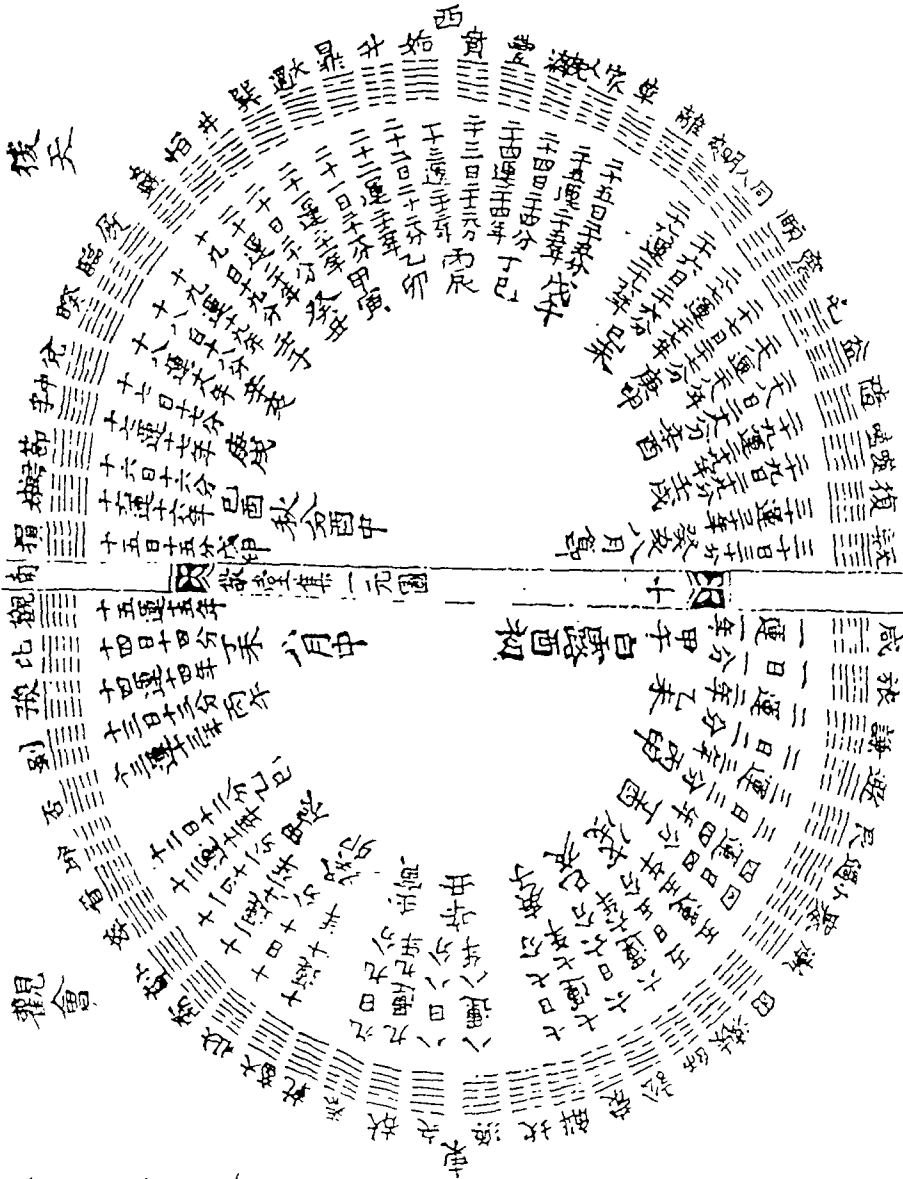


九會 九萬七千二百年
九世 二百七十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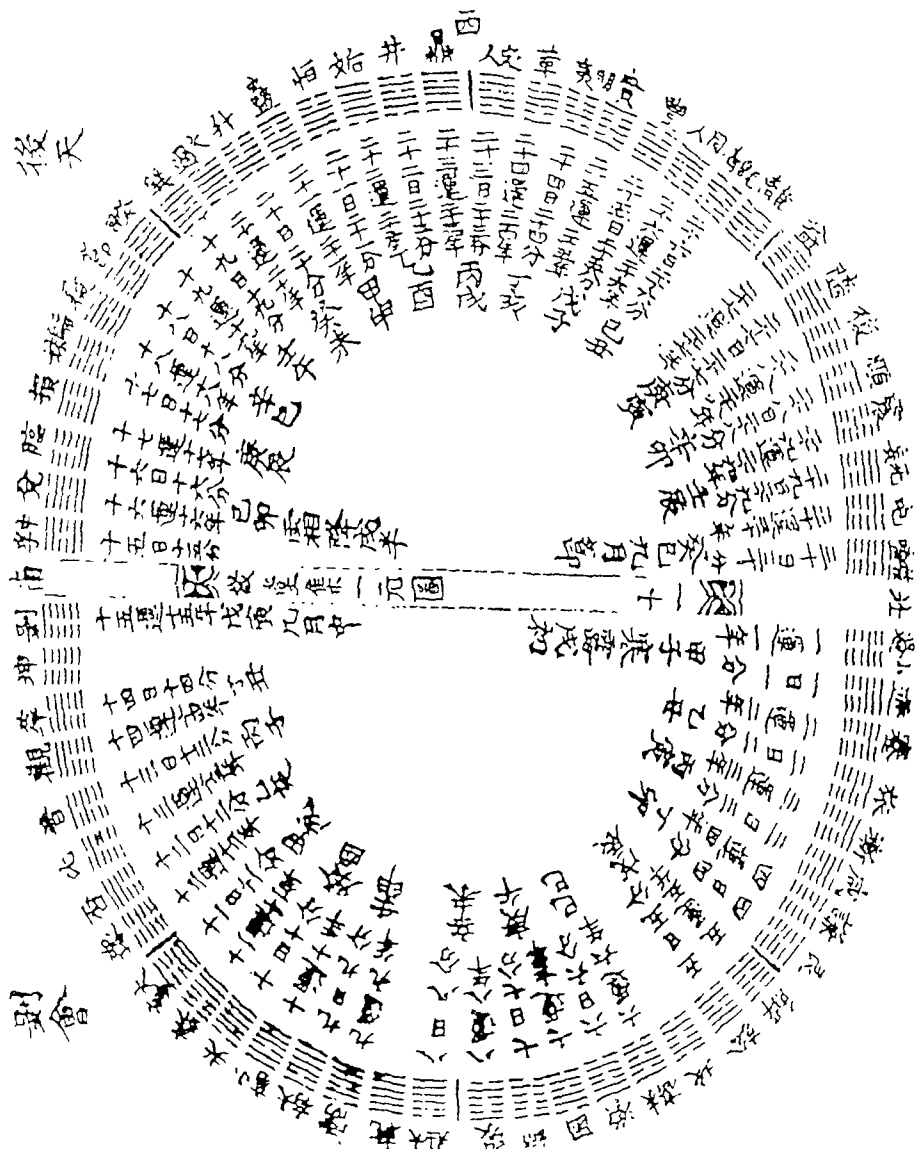
九月 九萬八千年
九辰 二百七十分

十會 十萬八千分
 十世 三百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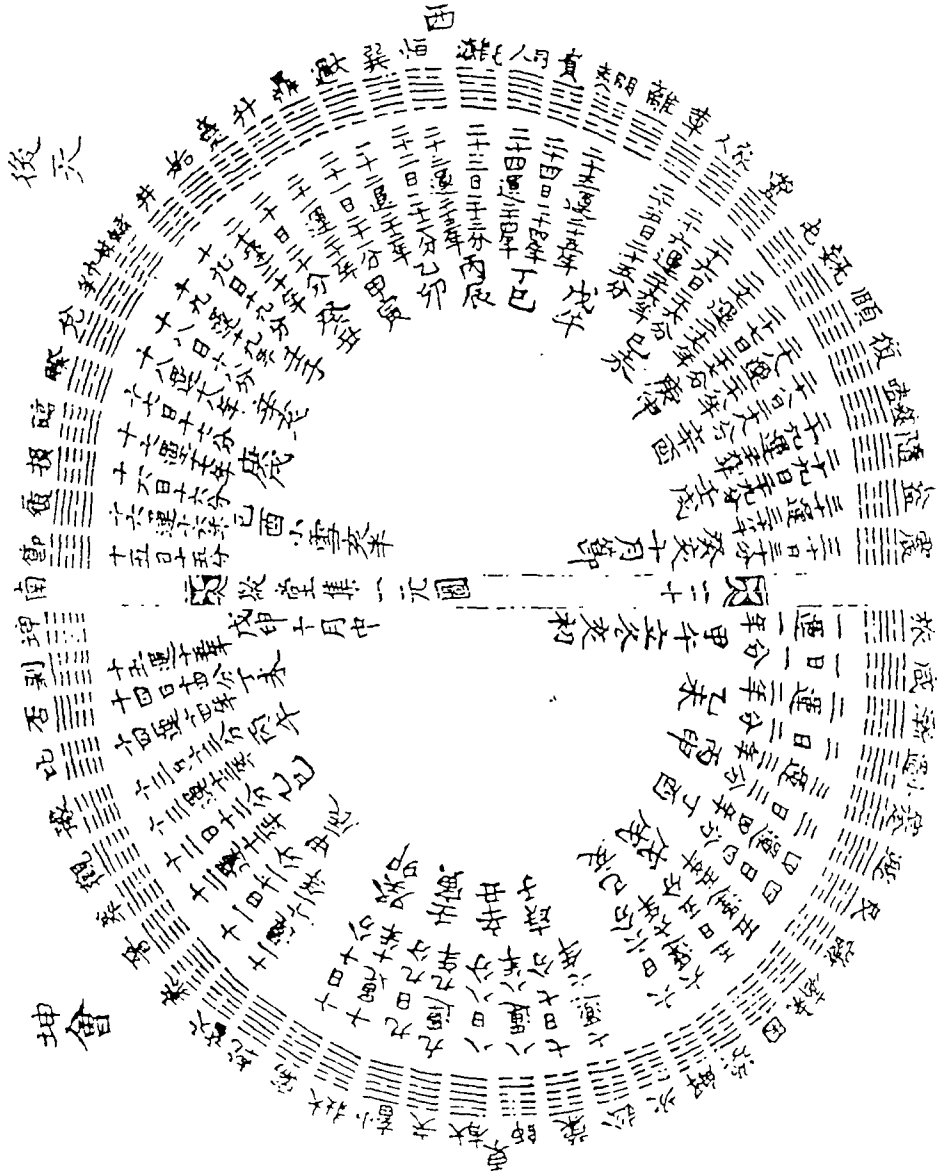
十月 一萬八千分
 十辰 三百分

十會 十一萬八千八百分
十世 三百三十分



十月 十一萬八千八百分
十辰 三百三十分

十二會 十二萬九千六百年
十二世 三百六十年



十月 十二萬九千六百分
十辰 三百六十分